

2021 새해 새 설계

김순호 구례군수

“수해 재발 방지·피해 배상 총력... ‘안전’에 가치 두겠다”



“홍수 재발 방지와 민간인 피해배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0일 “새해에는 ‘안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한 구례군의 공공시설 복구 비용은 총 3536억원 규모다. 이 중 2184억원이 개선 복구(재발 방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시천 등 지방하천 6곳과 소하천 5곳에 1073억원을 투입해 제방 높이를 최대 3m 이상 높이고 각종 구조물을 개선한다. 제방이 높아짐에 따라 교량 54곳도 개축할 계획이다. 나머지 1111억원은 침수지역인 문적·간전·토지·마산면에 배수펌프장 9개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김 군수는 “지난해 수해가 댐 수위조절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며 “주민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복구·개선 사업에 2184억 투입

행정·소방·경찰 합동 재난대응

지리산온천 등 4대 권역 개발

구례군은 1월 중으로 손해사정인 용역을 마무리해 배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또 환경부·행안부·국토부 3개 부처 합동 조사용역이 7월 완료된다. 김 군수는 “정부 합동조사에 민간 대책본부와 적극 협력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100% 피해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119안전센터를 구례소방서로 승격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가구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설치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소방·경찰이 함께 상황을 관리하는 통합 공간(플랫폼)도 구축한다.

2021년 주요 사업

- ▲홍수 재발 방지 사업에 총력
- ▲민간인 피해배상 적극 지원
- ▲섬진강 하늘자전거·힐링생태공원 조성
- ▲지리산 정원에 집라인·모노레일 조성
- ▲자연드림파크 2·3단지 조성
- ▲5일 시장 현대화 및 공동브랜드 개발
-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

구례읍, 섬진강, 화염사, 지리산온천을 4대 권역으로 정하고 총 27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구례읍 정주 여건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930억원을 투자한다. 5일 시장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LH행복주택 104호를 건립하는 등 침수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펼친다.

섬진강권역에는 590억원여를 투입해 하늘자전거(스카이라이프), 섬진강 힐링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한다. 화염사권역에도 치유센터 조성, 반달가슴곰 체험장 확대 등에 21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지리산온천권역에는 지리산 정원을 중심으로 집라인과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44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드림파크 2·3단지 조성도 역점 사업이다. 자연드림파크 2단지에는 물류센터와 공방을 새로 건립하고, 3단지에는 치유와 힐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와 연계해 식품 가공·유통·판매를 원스톱으로 하는 180억원 규모의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농민들의 경영 안전을 돕기 위해 농업 예산을 22% 이상 확대한다.

김 군수는 “새해에는 수해와 코로나19 확산 등 2020년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라며 “희망찬 2021년을 함께 만들자”고 다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약속 안지켜” 여수시, 해상케이블카 상대 소송

공익 기부금 23억원 미납
‘매출액 3% 기부’ 이행 안해
케이블카측 “장학재단 설립”

여수시가 공익 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액의 3%를 공익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여수시는 이달 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여수시에 내라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사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송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이달 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사진은 연인원 150만명 이상이 찾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시는 2017년부터 업체가 다시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자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상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의 법적 대응에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수 밤바다와 함께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코스가 된 해상케이블카는 해마다 15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160만명이 이용했으며 지난

해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91만명이 이용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케이블카 측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여수 케이블카가 공익기부금 납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세얼굴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행정 펼칠 것”

김경호 광양 부시장



역임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벽을 세우지 말고 막힘 없이 서로 소통하고, 목표는 크게 갖되 추진은 꼼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경호(57) 광양부시장은 “그동안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양을 더욱 매력 넘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출생인 김 부시장은 1983년 9급 공채로 순천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비서실장, 화순부군수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7월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농축산식품국장을 역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보성군, 귀농 창업비 최대 3억원 융자

주택구입비 지원도

보성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과 귀농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했고 보성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세대주다.

보성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업창업 비용으로는 최대 3억원이 융자 지원되며, 농기구매·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구매·신축 비용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귀농인은 다음달 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택 기자 kyb@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난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진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